속도 안나는 기아차 '텔루라이드'… 리콜 악재까지 가세

신차 경쟁력에도 3월 5000대 판매
美 인기차종은 月 1만대 이상 기록

익스플로러 등 美정통 SUV에 밀려
차량 화재 등 결함 논란도 걸림돌

기아차 대형 SUV '텔루라이드'의 모습.

기아자동차가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내놓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텔루라이드의 '신차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논란 등의 악재도 발목을 잡고 있다.

기아차는 대형 SUV의 선호도가 높은 북미 소비자를 위한 전용 모델로 텔루라이드를 출시했지만 미국의 정통 SUV 회사인 GM과 포드, 일본 완성차 업체 도요타와 혼다의 판매량에 막혀 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의 텔루라이드는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지난 3월 미국에서 5080대가 판매됐다. 일각에서는 기아차의 텔루라이드 인기와 현대차의 대형SUV 팰리세이드의 합류로 미국 시장 흥행 굳히기에 나서는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북미 자동차 시장에서 대형 SUV의 판매량을 비교하면 텔루라이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지난해 미국 대형SUV 판매에서 1위를 차지한 제품은 포드 익스플로러로 지난해 25만690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위는 일본 완성차 브랜드 도요타의 하이랜더가 24만4511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3위는 넓은 실내공간과 뛰어난 안전성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혼다 파일럿이 15만9615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4위는 올 하반기 국내 출시되는 한국지엠 쉐보레의 트래버스가 14만6534대 판매하며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지엠의 트래버스는 올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2019 서울 모터쇼에 모습을 드러내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2018년 美 대형 SUV 판매실적〉

순위	모델명	판매실적
1	포드 익스플로러	25만690대
2	도요타 하이랜더	24만4511대
3	혼다 파일럿	15만9615
4	쉐보레 트래버스	14만6534
5	GMC 아카디아	8만8621

북미 대형 SUV의 인기 차종이 월 1만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반면 기아차의 텔루라이드는 신차 경쟁력을 갖추고도 판매량 확대에는 힘겨운 모습이다.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서 차량 화재 사고 등의 악재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코네티컷 주(州)를 비롯한 여러 주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과 화재 논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최근 보도했다.

코네티컷주 윌리엄 통 검찰총장은 "코네티컷 검찰은 리콜 조치로 인해 이미 수리된 것으로 알려진, 코네티컷에서만 접수된 다수의 화재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이며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책임감 있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 총장은 다만 몇 개의 주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연방 검찰은 지난해 11월 현대·기아차의 엔진결함 관련 리콜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연방 검찰은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도 공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의 텔루라이드가 북미시장서 호평을 받고 있지만 현지업체와 일본 브랜드에 밀려 판매량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최근에 불거진 차량 결함 논란도 소비자들의 구매를 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직원들이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에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 U+, 신기술 더해 5G 품질 강화

품질안전보안 관리위 개최
'EN-DC' 접목해 배터리 연장
'빔포밍' 등 기술로 속도 최적화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을 높인다. LG유플러스는 5G 서비스 품질을 높여주는 핵심 기술인 'EN-DC', '빔포밍', 'MU-MIMO'를 자사 5G 네트워크에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서울 용산 사옥에서 하현회 부회장과 네트워크, 단말, 영업, 전략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품질안전보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5G 품질향상 방안을 마련해 즉시 실행키로 결정했다.

우선 LG유플러스는 5G 품질 향상을 위해 5G와 롱텀에볼루션(LTE)을 결합하는 EN-DC(E-UTRA NR Dual Connectivity) 기술을 5G 네트워크에 순차 적용한다. EN-DC를 적용하게 되면 5G와 LTE 두 개의 망을 동시에 사용해 5G 이용 속도에 LTE 속도가 더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G 스마트폰의 배터리 사용시간도 1.5배 이상 연장시킬 수 있다. 5G 스마트폰이 5G망을 활용하면 LTE망에 연결됐을 때 보다 더 많은 배터리 전력을 소모한다. 채팅, 웹서핑 등 저용량 서비스는 LTE망에 우선 연결시키고, 대용량의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LTE와 5G망을 동시에 활용하면 소모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커버리지와 가입자 수용 용량을 높이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인 5G 핵심기술 '빔포밍'과 'MU(Multi User)-MIMO'를 전국 5G 네트워크에 적용키로 했다. 이들 기술을 적용하면 동시에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몰리는 프로야구 경기장이나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도 속도 저하 없이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빔포밍은 5G 전파 신호(빔)를 원하는 곳에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이다. MU-MIMO는 하나의 기지국에서 5G 신호를 동시에 여러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기술이다. LG유플러스는 MU-MIMO 적용으로 타사 대비 기지국당 최대 4배의 데이터 용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이달 내 자사 홈페이지에 5G 서비스 커버리지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LG유플러스는 5G 상용화를 앞두고 품질안전보안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CEO 주관으로 매월 회의를 열어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 IT 인프라 품질과 전사 통신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삼성, 반도체 특허 5803건 출원 '세계 1위'

中 인코펫 '반도체 기업' 조사
LG, 4047건 출원으로 '2위'
BOE〉SEL〉CSOT 뒤이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 특허 출원에서도 경쟁사들을 앞섰다. LG가 2위로 빠르게 추격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특허 정보업체 인코펫은 최근 '2018 글로벌 반도체 기술 특허 출원 100대 기업' 조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특허 정보 1억건을 분석한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특허를 5803건 출원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D램뿐 아니라 반도체 재료, 공정 등을 포함했다.

삼성전자 中 시안 반도체 공장.

2번째는 LG였다. 4047건 반도체 관련 특허를 갖고 있었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계열사인 실리콘웍스를 중심으로 LG이노텍과 LG전자 등이 특허 출원에 힘쓴 것으로 풀이된다.

그 밖에 국내 업체는 SK하이닉스가 1337건으로 18위에 랭크됐다. 반도체 장비 업체 세메스가 429건으로 51위, 에쓰오일이 206건으로 79위, 현대자동차가 205건으로 80위였다.

중국 업체 성과도 컸다. 중국 BOE가 2792건으로 3위. 중국 CSOT가 2136건을 출원해 각각 3위와 5위에 올랐다.

인텔은 2069건으로 6위에 머물렀다. 4분기 메모리 반도체 불황으로 다시 반도체 업계 1위로 올라섰지만, 기술력 확보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따라가지 못했다.

한편, 일본 업체들도 활약했다. 10위권 안에 SEL(2466건, 4위), 도쿄일렉트론(2008건, 7위), 미쓰비시전기(1944건, 8위), 도시바(1931건, 9위)가 오른 가운데, 100대 기업 중에서도 41곳이 포함됐다. /김재웅 기자 juk@

KT파워텔, 차량 관제 솔루션 시장 진출

모본과 '파워 ADAS' 출시
'MDAS-9'에 사물인터넷 연동
운전자 안전에 차량 관제 더해

KT파워텔은 차량용 전장(전기장비) 솔루션 전문기업 모본과 손 잡고 차량 통합 관제 솔루션 '파워 ADAS'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에게 전방 추돌, 차선 이탈, 안전 거리 및 속도 등 위험 요소를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파워 ADAS는 모본의 'MDAS-9' 단말에 KT파워텔의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연동해 실시간 위치 확인과 주행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한 솔루션이다.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비롯해 유류비, 보험료 등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차량에 설치된 파워 ADAS 솔루션이 운전자에게 전방 추돌, 차선 이탈, 안전 거리 및 속도 등 위험 요소를 미리 알려주고 있다. /KT파워텔

모본의 MDAS-9는 국내 제품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전방충돌경고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성능규격시험'을 통과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된 단말기다. 장착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T파워텔 측은 "올 연말까지 버스·화물차 등 대형차 총 17만대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장착이 의무화된 만큼 차량 관제까지 지원하는 '파워 ADAS'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워 ADAS 솔루션의 가입 및 기타 문의는 KT파워텔 전국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윤수 KT파워텔 대표는 "5G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ADAS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